

尹 “100개 기업인과 함께 성과 기대”… UAE “행운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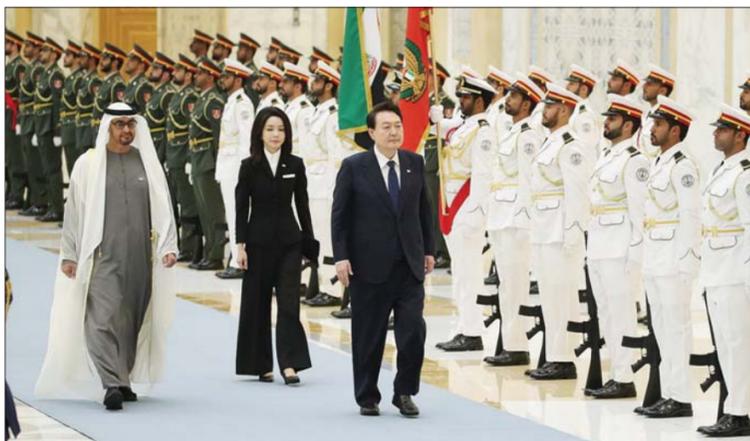
尹 대통령, 취임 첫 국민방문
“이번 방문서 큰 성과 도출 기대”

공군전투기 4대가 호위비행 등
UAE측, 격 맞춰서 최고의 예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여러 부처 장관, 그리고 100여개 기업인들이 저와 함께 왔다”며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4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 직후 영접을 나온 압둘라 알 나흐얀 외교부 장관에게 이 같이 말하며 공항 청사 안의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환담을 진행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아부다비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에서 브리핑을 통해 UAE 측이 최고의 예우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스1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지난 1980년 양국이 국교 수교를 한 이후 첫 국민 방문”이라며 “그리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의 첫 번째 국민 초청 국가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UAE 측은 국민 방문의 격에 맞춰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며

“예우의 일환으로 UAE 방공식별구역에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서면서부터 UAE의 공군 전투기 4대가 우리 공군 1호기를 호위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은 윤 대통령 부부가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국민 영접으로 압둘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수아힐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장관,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3명이 선정돼 이례적인 환대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의 친동생이기도 한 압둘라 외교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다. 오늘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며 “영부인님을 뵙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우리는 행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국민 초청이자 그 초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데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세 분께서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저 또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해 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제 아내도 대통령 모친인 파티마 여사를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한다”고 전

했다.

이번 순방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박진 외교·원희룡 국토교통·이창양 산업통상·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동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별도로 이동해 현지에서 합류한다.

김 수석은 “8개 부처 장관 모두가 수출로 대한민국의 활로를 모색할 각 산업부 장관으로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로 이번 순방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오일붐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중동에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며 “100여명이 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해 수출 증대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국민 모두 잘 사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순방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2020년 산 집도 매도기한 3년 소급적용

기재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이하 기존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취득세 8% 아닌 1~3% 기본세율 적용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작성년에 주택을 구매해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중부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도 8% (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초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중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중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영세 소매상 중심 소상공인 반발 거세

>> 1년 '대형마트 평일휴업'서 계속

신도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점과, 인근 지역 김포시가 먼저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면서 주말 휴무일 고양시 고객이 김포시로 이탈해 지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끼친 점이 평일 휴업 근거다.

대구시도 대구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휴업일 평일화를 마트 주차장 무료 개방과 함께 건의해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건의에 찬성한 연합회 회원은 100%로 전원이다.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평일 시행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에 고객이 인근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

켓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유동인구가 줄면서 상권이 축소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대구에서 3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해당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전부터 지적됐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1년 후 1km 이내에 있는 전체 업종에 대한 매출액 변화가 폐점연도에 비해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km 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서 매출액이 오르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김서현 기자 seoh@

물론 대구 지역 모든 소상공인이 평일 휴무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 소매상 중심의 1·2지구 소상공인 단체인 대구상인연합회와 달리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도매업자 주축의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의 경우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변경이 중소 유통업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관련법의 의도를 무력화하고 골목상권의 안전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달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에 이어지는 조치인 만큼 이번 대구에서 변경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첫 광역시에서의 평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성공하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정책금융기관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합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3.5조원	5.5조원	0.7조원	0.5조원	0.7조원	3.4조원	14.3조원
9조원		1.2조원		4.1조원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중소·중견기업에 14.3조 자금공급

금융위, 설 연휴 자금지원 방안
기업은행, 기업당 최대 3억 지원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자금 1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 납부·공과금 등 자동납부 기일이 있다면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세뱃돈을 위한 신권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은행 이동·탄력적포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자금지원 및 금융 이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4조3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부여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보증 7000억원, 보증연장 3조4000억원을 지원해 4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각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 납부·공과금 등 자동납부 기일이 있다면

이달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조율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0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20일 미리 지급한다.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25일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매매대금은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20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3영업일이 지난 24일이지만 26일로 늦춰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은 설 연휴직전인 20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신권교환 등 간단한 금융거래도 가능하다. 중부고속도로를 타면 20일 하나드림계좌에서 농협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는 하나은행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이동점포는 20~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ATM이용과 신권교환 모두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서는 연휴기간 신한·우리·하나은행이 환전업무를 진행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22일과 24일 경기 안산외국인금융센터에서 외국인대상 환전·송금·신규·제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나유리 기자 yul115@